

釋讀口訣 자료와 『韓國漢字語辭典』*

이 병 기**

Ⅰ 국문초록 Ⅰ

이 논문은 ‘한국한자어사전 증보편찬 방향의 모색’이라는 공동 주제 아래,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한국한자어’를 『한국한자어사전』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먼저 석독구결 자료를 소개한 뒤 현재 『韓國漢字語辭典』에 반영된 ‘한국한자어’의 범위와 구결자의 정보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고빈도 석독구결자를 추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석독구결의 특징을 고찰하였으며 이러한 고빈도 석독구결자를 등재하고자 했을 때 발견되는 『韓國漢字語辭典』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고찰 결과 석독구결자의 특징, 즉 ‘是’를 ‘이’(지시사, 주격 조사, 서술격 조사 등)로 읽는 것과 같은 정보를 반영하기 위한 사전의 미시구조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한자어의 한국 수용과 정착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적절한 용례를 석독구결 자료에서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주제어] 석독구결, 한국한자어, 한국한자어사전, 구결자, 미시구조

Ⅰ 목 차 Ⅰ

- | | |
|---------------------------|--------------------|
| I. 서 론 | IV. 고빈도 석독구결 어휘 분석 |
| II. 석독구결 자료 소개 | V. 결 론 |
| III. 한국한자어의 범위와 『韓國漢字語辭典』 | |

I. 서 론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한자어사전 증보편찬 방향의 모색’이라는 공동 주제 아래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한국한자어’를 『한국한자어사전』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거시구조 차

* 이 논문은 제7회 동양학연구원 사전학 학술회의(2015.10.23)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완한 것이며, 2015학년도 한림대학교 교비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다(HRF-201511-001).

** 한림대학교 교수 / prefalla@hanmail.net

원에서 석독구결 자료에 담긴 어휘 중 ‘한국한자어’의 범위에 포함되는 어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고찰하고 미시구조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제시되어야 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위해서는 먼저 한국한자어가 무엇이고 이 범주에 과연 구결자 및 석독 한자들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미 편찬된 『韓國漢字語辭典』의 증보편찬 방향을 논의하는 이 논문의 성격상 ‘한국한자어’가 무엇이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韓國漢字語辭典』 편찬 당시에 규정한 ‘한국한자어’의 개념과 범주를 분석하고 이 틀에 따라 석독구결 자료를 고찰하기로 한다.

이에 대한 이전의 연구는 『한국한자어사전』에 구결자가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소개한 박찬규(2012)가 있는데 『한국한자어사전』이 편찬될 당시에는 아직 석독구결 자료에 대한 연구가 시작 단계였기 때문에 이들 자료가 논의에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먼저 석독구결 자료를 소개하고 이들 자료에 나타나는 한자어의 특성을 분석하여 『韓國漢字語辭典』에서 규정한 ‘한국한자어’의 범주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논의해 나가기로 한다.

II. 석독구결 자료 소개

구결은 한문 원문을 해독할 때 그 의미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 한문 어구 사이에 덧붙이는 우리말 조사나 어미와 같은 요소를 말하는 것인데 구결 자료라 함은 이러한 구결이 달린 한문 경전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구결 자료 중 석독구결 자료는 이 한문 경전을 좀더 우리말에 가깝게 그리고 정확하게 읽어내고자 하는 노력의 소산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문 경전을 모태로 한 석독구결 자료는 엄밀한 의미에서 한국한자어와 무관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한국한자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석독구결 자료에 담긴 많은 한자 및 구결자들이 『한국한자어사전』의 직접적인 기술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한국한자어사전』에는 구결을 한국한자어의 범주에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

먼저 지금까지 알려진 석독구결 자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하기로 한다.¹⁾ 구결은 신라 義湘(625~702)이 활동하던 시대부터 발달된 것으로 보이는데(남풍현 1988, 정재영 2006: 127-8), 유형별로 분류하면 점토(부호, 각필) 구결과 자토(문자) 구결로 나누고 각각을 다시 석독구결과 음독구결로 나눌 수 있다. 남풍현(2003), 장윤희(2004, 2006), 백두현(2005), 정재영(2006) 등은 석독구결 자료가 10세기 중반부터 13세기 후반까지의 자료이지만 반영되어 있는 언어 현상은 아주 보수적이어서 이전 시기의 향가나 이두와 표기 양상 및 언어 사실이 유사하고 석독구결 이후의 음독구결이나 언해 자료에 나타나는 양상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²⁾ 석독구결 자료를 고대국어 자료로 간주하고 있다. 석독구결 자료의 현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석독구결 자료에 대한 소개는 이병기(2014)에서 서술한 내용을 약간 보완한 것이다.

2) 정재영(2006: 154-5)은 15세기에도 석독구결의 흔적이 남아있는 자료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화엄사판 『父母恩重經』(1441, 불갑사 소장)은 음독구결이 주로 기입되어 있지만 부분적으로 석독구결의 흔적도 남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는 말 그대로 흔적이고 석독구결 자료에서 보이는 언어 사실이 그 이후의 자료에서 보이는 언어사실과 대별된다

먼저 자토석독구결 자료 현황이다.

〈표 1〉 자토석독구결 자료

문헌명(판본)	약호	시기 ³⁾	영인	비고
釋華嚴教分記		10세기 중엽. 均如(923~973)		2문장
大方廣佛華嚴經疏 卷35	華疎	12세기초기//11세기말내지12세기초//11세기말~12세기초//12세기중엽 혹은 그 직후//12세기	남권희(2002)	
大方廣佛華嚴經 卷14	華嚴	12세기중기//12세기중엽//12세기중후반//12세기말에서 13세기초//12세기후반에서 13세기초	구결연구1	
舊譯仁王經 卷上	舊仁	13세기후기//13세기중엽//12세기중엽이후//13세기중엽이후//13세기	구결연구2	5장 낙장본
(合部)金光明經 卷3	金光	13세기중기이후 ⁴⁾ //13세기초엽//13세기중엽//13세기중엽이후//13세기		각필, 유가 계열
瑜伽師地論 卷20	瑜伽	13세기후기//13세기후반//13세기후반//석독구결엽//13세기 후반	남풍현(1999)	再雕大藏經
慈悲道場懺法 卷4	慈悲	13세기		卷4 殘片

다음은 정재영(2006), 장경준(2008)을 바탕으로 점토석독구결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표 2〉 점토석독구결 자료

문헌	소장처	영인	비고
晉本華嚴經 卷20 ⁵⁾	성암고서박물관	이승재 외(2009a)	
周本華嚴經 卷6	성암고서박물관	이승재 외(2006b)	국보230호 木版卷子本
周本華嚴經 권22	성암고서박물관	이승재 외(2009a)	
周本華嚴經 권31	호림박물관	이승재 외(2009b)	
周本華嚴經 권34	호림박물관	이승재 외(2009b)	

는 설명을 반박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정재영 외(2016)에서는 조선초기 석독구결 자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 3) 시기는 기본적으로 구결 기입 시기를 말한다. 안병희(1992)에서 소개하고 있는 『釋華嚴教分記』를 제외하고 시기 추정에는 남권희(1997)//남풍현(1998)//장운희(2004)//백두현(2005)//정재영(2006) 순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慈悲度量懺法』은 남권희·남경란(2016)의 견해만을 제시하였다. 남권희·남경란(2016)은 이 문헌의 구결이 『大方廣佛華嚴經疏 卷35』와 같이 정밀하다는 것과 구결자의 쓰임 등을 보여주었는데 앞부분에서 설명한 ‘자비도량참법’의 여러 판본과 연결하여 설명하지 않아 더 구체적인 시대 세분에 대한 정보는 없어 발표 제목에서 밝힌 13세기를 따랐다.
- 4) 남권희(1997)은 『(합부)금광명경』 권3 중에서 필체가 다른 앞뒤는 ㅈ의 기입 연대를 13세기 중기라고 추정하고 있다.
- 5) 정재영(2006: 151)에 따르면 13장 17행 위의 欄上에 원문의 내용을 수정하여 묵서로 기입한 “有本云 衆生 ㄹ 身 ㄷ 中 ㄹ +”와 같은 자토 석독구결이 있다.

문헌	소장처	영인	비고
周本華嚴經 권36	성암고서박물관	정재영 외(2003) 이승재 외(2006a)	국본204호 木版卷子本
周本華嚴經 권57	성암고서박물관	이승재 외(2006b)	
瑜伽師地論 권3	호림박물관		
瑜伽師地論 권5	성암고서박물관	이승재 외(2005)	
瑜伽師地論 권8	성암고서박물관	이승재 외(2005)	
合部金光明經 권3			卷子本을 線裝本으로 改裝
法華經 권1	연세대박물관		

이 외에도 정재영(2006)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구결이 섞여, 석독구결 자료라고 하기는 어려운 기타 점토(부호) 구결을 여러 편 소개하였으며 2015년 구결학회 여름 전국학술대회에서는 새로 소개된 구결 자료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정재영·안대현·하정수(2016)에서는 고려시대 자토석독구결 자료로 南禪寺 소장 『四分律』 권40과 조선초기 자토석독구결 자료로 원각사 소장 『法華經』과 『圓覺經』 몇 권을 소개하였다.

이들 석독구결 자료 중 『한국한자어사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자토석독구결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표 1>에서 『釋華嚴教分記』와 아직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않은 『慈悲度場懺法』을 제외한 5종의 고려시대 자토석독구결 자료를 대상으로 이후의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구결자들의 구체적인 양상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대표적인 몇몇 글자들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다만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석독 한자어와 약체 구결자가 『한국한자어사전』의 증보 편찬과 관련한 논의의 직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며, 석독구결 자료의 원전이 우리나라에서 읽힌 초기 한문 경전이라는 점에서 이들 자료에 나타나는 한자어 자체도 『한국한자어사전』의 편찬과 증보에 있어서 이차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다음 논의로 이어가기로 한다.

Ⅲ. 한국한자어의 범위와 『韓國漢字語辭典』

『韓國漢字語辭典』(1992) 序文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漢韓大辭典』은 韓·中·日 각국에서 통용되는 漢字 語彙를 포괄적으로 수용하되 우리 조상들이 고유하게 만들어 써 온 이른바 國字 및 韓國 固有 漢字 語彙를 수집 정리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漢字 文化圈에서 쓰는 공통적인 漢字 및 어휘는 주로 국내외의 既成 辭典을 널리 활용하되 검토 정리하여 취사선택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기성 辭典에 빠진 어휘를 조사 정리함과 아울러 한

국의 고전 문헌 중에서 한국인만이 독특하게 써 내려온 漢字 어휘를 그 出典과 함께 채록 정리하는 작업이 보태어져야 하였다. / 이번에 출간하는 『韓國漢字語辭典』은 곧 한국어 고전 문헌에서 한국인이 독특하게 써 내려온 어휘만을 뽑아 엮은 것이다. 그것이 비록 『漢韓大辭典』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용면에서는 그 핵심이 되는 부분이므로, 편찬 작업 전과정에 있어서 인력과 시간과 정성이 가장 집중적으로 담긴 부분이라 하겠다. / (중략) 여기에 수용된 漢字는 韓國 漢字語와 관련된 漢字로 제한하고, 그 字解도 漢字語의 語義 풀이와 관련되는 범위에 한정하였다. 한국 특유의 國字는 수백 자 정도 정리하여 수용하였고, 기존 漢字라도 다른 音·義로 사용된 借用語의 例가 없지 않아서, 그런 경우 國音·國義라 하여 본래의 音·義와 구별하여 수용하기로 하였으며, 한국 고래의 이두와 구결도 가능한 한 모두 취합하여 수록하였다.

이를 보면 『한국한자어사전』의 성격에 대하여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고유하게 만들어 써 온 이른바 國字 및 韓國 固有 漢字 語彙를 한국 한자 및 한국 한자어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음과 뜻이 원래 한자와 다른 경우 國音, 國義로 구분하여 이들 글자도 한국 한자(어)에 포함시켰으며 이의 연속선상에서 이두와 구결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자는 형태, 의미, 소리가 복합되어 있다. 셋 모두 새롭게 한국에서 만들어진 한자는 물론이고 이들 중 하나라도 한국에서 새롭게 됐다면 한국 한자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포함된 한자어 역시 한국한자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한자어사전』에서도 이두, 구결, 차자어를 포함시켰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표제어 ‘伊’가 포함된 한자어로 ‘伊 ㅅ 大 ㅅ’이 있는데 ‘伊 ㅅ 大 ㅅ’은 ‘인덴’으로 읽히는 구결 표기이다. ‘伊’와 ‘大’는 본래의 의미와 관련이 없고 ‘ㅅ’은 의미뿐만 아니라 형태도 ‘隱’의 왼쪽 부분만을 취하여 크게 변화였다.

이러한 『한국한자어사전』의 편찬 태도를 본다면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많은 글자와 단어가 『한국한자어사전』에 녹아들어 있을 것이 예상이 된다. 박찬규(2012: 215-6)에 따르면 『한국한자어사전』에 실린 이두·구결·차자어는 4,475개로 총 89,705개 단어의 약 5%를 차지한다. 그리고 이두·구결·차자어 중에 구결은 7.79%에 해당하는 349개의 단어가 실려 있다. 그리고 구결어를 이용한 출전문헌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 | | |
|----------------|-----------------------|
| 1 古今釋林(1건) | 9 吏讀便覽(5건) |
| 2 農圃集(1건) | 10 吏文條例(1건) |
| 3 大明律直解(3건) | 11 壬辰狀草(1건) |
| 4 童蒙先習(60건) | 12 正俗諺解(38건) |
| 5 審理錄(1건) | 13 朱子增損呂氏鄉約諺解(19건) |
| 6 龍飛御天歌諺解(24건) | 14 註解語錄總覽, 吏文語錄(2건) |
| 7 儒胥必知(2건) | 15 地藏菩薩本願經(226건) |
| 8 義禁府謄錄(1건) | 16 豐基境淸潭院慈寂禪師凌雲塔碑(1건) |

이를 보면 전체 16종 문헌에서 386건의 전거 자료를 채록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문헌은 조선시대에 간행된 이두 자료나 간단한 음독구결이 달려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석독구결 자료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석독구결 자료인 『구역인왕경』 발견 이후 축적된 구결에 관한 연구 성과가 『한국한자어사전』에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 준다.

윤승준(2012: 154-7)에 따르면 사전 작업이 1978년에 시작되었으나 첫 권의 출간이 1988년으로 계획되었던 『한국한자어사전』이 2차에 걸친 편찬 계획의 수정을 거치면서 1992년에 가서야 비로소 출간되었다고 한다. 口訣研究會가 1987년에 결성되고 1990년부터 매월 강독회를 열게 된 것을 생각하면 『한국한자어사전』에 구결에 대한 연구 성과가 반영 안 된 사정이 이해가 된다.

이제 구체적으로 각 한자의 집필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한자 어휘와 구결자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대표적으로 ‘是’를 대상으로 하는데 ‘是’는 석독구결 자료에서 한자 어휘로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며⁶⁾ 그 자체가 약체자 ‘ㄴ’로 음독구결자료에서 구결자료로도 사용되는 것이기도 하다.

〈표 3〉 ‘是’의 집필 양상(2권 740-753)

是 이 시
 圖-이. 주격을 나타내는 토. <大明律, 名例律, 稱與同罪, 直解> 凡與同罪人是 當死爲在乙良 …
 [是加尼 이더니] 圖-이더니. 是等尼. (용례)
 [是加喻 이던디] 圖-이던지, -이든지. 是等喻. (용례)
 [是加隱喻 이던디] 圖 “是加喻”와 같다. (용례)
 …
 [是遣 이고] 圖-이고. 以遣, 只遣 (용례)
 …
 [是尼 이니] 圖-이니. 伊尼. <童蒙先習, 君臣有義> 雖然是那, 吾君不能乙, 謂之賊是尼. <吏讀便覽> 是尼 이니.
 …

‘是’의 집필 양상을 보면 먼저 ‘是’의 훈과 음을 제시한 뒤 이두로 주격조사로 쓰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是’가 포함된 ‘한국한자어’의 예로 200개 가까이 정리하고 있다.⁷⁾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두 용법으로 주격을 나타내는 토로만 제시한 뒤 이어지는 한자어들은 모두 서술격조사로 사용된 예들이라는 점이다. 구결이나 이두에서 문법형태로 제시되는 것들은 한국어의 교착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是’가 무엇으로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주격조사와 서술격조사로 사용되었다는 정보가 제일 위에 제시될 것이 예상되는데 실제로는 뒤에 다른 형태가 덧붙지 않은 주격조사로서의 정보만 제시하였다.

그런데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是’를 고려하면 더 많은 정보가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석독구결

6)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어휘의 빈도별 양상은 4장에서 소개된다.

7) 이렇게 많은 예를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是尼 이니] 항목의 용례에 포함되어 있는 ‘是那’는 따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현재의 틀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수정이 필요하다.

자료에서는 ‘是’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지시사 ‘이’를 나타내었다.

- (1) 가. 此₁ 菩薩₁ 是₁ 事₁ 有₁ 入₁ 故₁ 是₁ 事₁ 有₁ 分₁ 〈화소01:04-05〉
 나. 是₁ 名₁ 下 菩薩摩訶薩₁ 九 第₁ 持藏₁ 之₁ 名₁ 下 〈화소24:16〉
 나. 是₁ 名₁ 下 說法三昧₁ 之₁ 力₁ 之₁ 名₁ 下 〈화엄20:15〉
 다. 是₁ 如₁ 之₁ 一切₁ 皆₁ 能₁ 現₁ 之₁ 海印三昧₁ 之₁ 威神₁ 之₁ 力₁ 下 〈화엄15:02〉
 다. 是₁ 如₁ 之₁ 十種₁ 名₁ 下 内外₁ 依₁ 之₁ 生圓滿₁ 之₁ 名₁ 下 〈유가03:18-19〉

(1 가)를 보면 是가 전훈독자로 쓰여⁸⁾ 뜻인 ‘이(이)’로 읽게 된다. 『화엄경소』는 원래 한문으로 된 중국 불경이지만 구결을 통해 우리말로 가깝게 읽게 된 구결 자료 『화엄경소』는 우리 문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술했듯이 이 문헌에서 형태, 뜻, 소리에서 한국화한 요소가 있다면 한국한자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是’에 대하여 석독구결 자료에서 지시사 ‘이’로 사용되었다는 정보가 사전에 담겨야 할 것이다. 혹시 (1 가)의 예가 ‘是’의 예가 아니고 ‘是₁ 事₁’의 용례라고 볼 수도 있는데 (1 나)와 (1 나)의 비교 (1 다)와 (1 다)의 비교를 통해 ‘是’가 후행하는 ‘이’ 없이도 ‘이’로 읽힌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의 ‘是’는 ‘이’로 읽히는 글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을 통해 구결자와 관련하여 더 생각할 것은 구결자 ‘이’를 표제 한자에 포함시킬지, 원자인 ‘伊’에 포함시킬지, 아니면 엄밀한 의미에서 한자가 아니므로 제외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이다. 현재 『한국한자어사전』에서는 ‘伊’에 대하여 “ 우리말의 조사 “이”의 음차(音借)로 쓰이는 글자. 《行用吏文》 伊, 南克寬曰, 我國物名終於必有伊字, 如漢語兒字. 高麗史云, 方言, 呼猫高伊, 今猶然. 但聲稍疾, 合爲一字.”라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두로 쓰일 때 그 기능적 설명과 이에 대한 전거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기로 하고 구결자 ‘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 아래 제시된 한국한자어로 ‘伊₁(羅)’, ‘伊₁’ 등의 예를 고려했을 때 구결자 ‘이’에 대한 정보가 빠진 것은 체계적이라고 할 수 없다.

종합적인 고찰이 더 필요하겠지만 ‘이’의 원자가 ‘伊’가 확실하다는 전제 아래 표제항 ‘伊’ 아래 ‘이’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지시사, 서술격 조사, 주격 조사 등의 용법이 유기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한국한자어사전』에서 ‘去乃’에 대하여 이두와 구결을 일반 사전에서 다의어를 제시한 것처럼 구분한 바와 같이⁹⁾ 일반 한자로서의 용법, 구결에서의 용법, 이두에서의 용법이 모두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한자 어휘들을 출현 빈도순으로 그 용법을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이후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어휘들을 『한국한자어사전』에 추가할 경우 참고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8) 전훈독자는 한자를 뒤의 구결자로 읽어 결국에는 한자를 우리말로 읽게 되는 글자를 말하며 전사하면서 ‘이’로 표시하였다.

9) 박찬규(2012: 216)에 따르면 이두와 구결의 겸용 사례로 ‘乙良(으란)’, ‘去乃(이두-거나, 구결-커나)’를 들고 있다.

IV. 고빈도 석독구결 어휘 분석

이 장에서는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한자 어휘들의 출현 빈도를 조사하고 각 어휘별로 용법 및 출현 양상을 제시하고자 한다.¹⁰⁾ 출현 빈도를 파악하는 것은 빈도가 높을수록 많이 사용된 어휘임을 나타내고 이들을 우선적으로 사전에 담아야 하기 때문이며 모든 어휘를 한 편의 논문에서 다룰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전훈독자와 음독한자어를 구분하지 않고 빈도순으로 제시하였는데 음독 한자어의 경우는 한자어의 토착화를 논하는 데 있어서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한국한자어사전』의 증보 편찬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종의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한자어의 종류(Word Types)는 총 3,401개이고 이들에 각각 현토된 구결자를 고려하여 중복된 경우를 모두 헤아리면(Word Tokens) 17,737개의 어휘가 산출된다.

구체적 양상을 알기 위하여 3,401개의 어휘 종류 중 고빈도 순으로 7위까지만 살펴보기로 한다. 7위 ‘衆生’까지만 살펴보면 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한자 어휘와 구결자에 대한 대략의 양상을 파악하고 사전에 어떠한 정보들을 담아야 할지 가능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2) 1위 고빈도 : 是

가. 출현 빈도 : 355¹¹⁾회

나. 출현 환경 : (是) 卬, 是 : 七, 是七(爾七ッ 1), 是 등

‘是’는 355회 출현하며 구결자 ‘卬’와 현토되어 전훈독자로 읽는 예가 86회나 되며 출현 환경을 고려했을 때 역시 지시사 ‘이’로 읽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七(ス)’이 현토된 경우도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경우의 ‘是’ 역시 ‘이’에 기반하여 읽는다.

(3) 2위 고빈도 : 於

가. 출현 빈도 : 318회

나. 출현 환경 : 명사나 구에 결합하여 부독자로 쓰임

‘於’는 명사나 구에 결합되어 있고 ‘於’가 아닌 전체 명사구 뒤에 처소를 나타내는 구결자가 현토되어 그 자체로는 부독자로 간주된다. 다만 “端正人乙 見 當 願 衆生 (於)佛 菩薩 尸十 常 淨信乙 生ッモ立 (화엄06:08)”에 나타나는 ‘於’의 경우는 문맥상 필요가 없어서 구결 현토자가 독법에 따로 제시하지 않은 것일

10) 빈도 조사와 용례 추출을 위하여 Antconc 3.4.4w 프로그램과 Uniconc 프로그램(서울대 박진호 교수 개발)을 사용하였으며 텍스트 자료는 고려대 장경준 교수가 제공한 2015년 7월 버전의 교감본 자료를 이용하였다.

11) 어휘의 출현 수, 즉 ‘word tokens’을 나타낸다. 각 어휘가 그 자체로 하나의 어휘가 되므로 다른 복수 음절의 어휘에 포함된 경우는 당연히 제외된다. 즉 ‘毗邏是’, ‘於是處’ 등은 별개의 어휘로 따로 제시된다.

(7) 6위 고빈도 : 故

가. 출현 빈도 : 256회

나. 출현 환경 : 故ㄷ, 故ㅁ, 故ㅂ, ㅁ{故}, 故ㅈ, 故ㅊ

‘故’는 음독자로 파악되며 ‘ㅁ(로)’ 뒤에 나타나는 ‘故’는 읽지 않는 부독자로 파악된다. 하지만 ‘故ㄷ’, ‘故ㅂ’, ‘故ㅈ’, ‘故ㅊ’ 등 부사어로 사용되는 ‘故’가 과연 음독 되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ㄷ(히/?), ㅂ(거), ㅈ(스), ㅊ(오)’ 등이 현토되는 일련의 부사어들에 대하여는 이병기(2014)에서 정리한 바 있는데¹³⁾ 중세국어와의 대응을 통해 고유어 부사로 읽을 수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독법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8) 7위 고빈도 : 衆生

가. 출현 빈도 : 256회

나. 출현 환경 : 조사 결합, 관형어 수식

7위 고빈도로 출현하는 ‘衆生’은 불경에서 그대로 음독하는 한자어 명사이다. 따라서 한국한자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¹⁴⁾ 하지만 ‘衆生’이라는 어휘는 현대 한국어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어휘이며 이러한 사용은 석독구결 자료와 같은 옛날 자료에서 한자어로 많이 사용되어 토착화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석독구결 자료는 그 자료의 특성상 혼독하지 않은 어휘는 한자어 그 자체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함의하며 이렇게 고빈도로 나타난다는 것은 이 한자어의 한국 토착화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衆生’은 ‘한국한자어’라는 기준에서 1회씩 등장하는 ‘矜念’, ‘離垢念’ 등과는 다른 위상을 가지며 적어도 『漢韓大辭典』에 서라도 『석독구결 자료』의 용례가 의미 있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상 7개 한자 어휘를 보면 그 소리와 뜻에 있어서 원래 중국 한자 어휘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일부 한자 약체자로서의 구결자는 형태, 소리, 뜻 모두에 있어 한국화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은 한국한자어의 범주에 포함시켜 논의해야 할 것인데 현재 『한국한자어사전』에서는 이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서 이들을 담아낼 수 있는 거시구조 및 미시구조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후 증보 편찬에 참고할 수 있도록 빈도 8위 이하의 어휘들을 마저 정리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4〉 8위~70위 고빈도 한자

순위	빈도	어휘	출현환경
8	242	有	有ㅈ, {有}ㅈ, {有}ㅂ, 有ㅊ
9	240	不	不ㅊ, 不ㅈ, 不(ㅈ)能, 不ㅂ, 不ㅈ,
10	237	諸	諸ㅈ, 諸

13) 이병기(2014)에서는 ‘故ㄷ’, ‘故ㅂ’, ‘故ㅈ’, ‘故ㅊ’ 등을 모두 음독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논의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14) 실제로 『한국한자어사전』에는 ‘衆生’이라는 어휘가 실려 있지 않다.

순위	빈도	어휘	출현환경
11	229	得	得 _ㄴ 15), 得 _ㄹ , 得 _ㄴ (-), 得 _ㄴ , 得 _ㄴ , 得 _ㄴ , 得 _ㄴ , 得 _ㄴ , 得 _ㄴ , 得 _ㄴ
12	222	若	若 _ㄴ , 若
13	211	當	當 _ㄴ , 當
14	207	所	所 _ㄴ 16)
15	202	能	能 _ㄴ ㄴ, 能 _ㄴ , 能 _ㄴ , 能 _ㄴ
16	195	此	{此} _ㄴ , 此, 此+조사
17	170	一切	一切, 一切+조사
18	156	願	願 _ㄴ , 願 _ㄴ , 願 _ㄴ , 음독 명사
19	145	法	음독 명사
20	139	名	名 _ㄴ , 名 _ㄴ , 名+조사 결합(ㄴ, ㄴ, 1)
21	138	說	說+어미
22	132	心	心 _ㄴ , 心+조사
23	127	佛	佛 _ㄴ , 佛 _ㄴ , 佛+조사
24	122	以	以 _ㄴ , {以} _ㄴ (+어미), 以 _ㄴ , 以 _ㄴ
25	119	又	又 _ㄴ 1 (2), 又 _ㄴ (2), 又(115)
26	118	見	見+어미, 見 _ㄴ , +조사
27	117	知	知+어미
28	110	等	{等} _ㄴ ㄴ-(화소, 화엄), 等 _ㄴ ㄴ, 等 _ㄴ ㄴ, 等 _ㄴ ㄴ(유가, 금광, 구인)
29	109	彼	彼 _ㄴ , 彼 _ㄴ ㄴ, 彼 _ㄴ ㄴ(+조사), 彼, +조사, 彼 _ㄴ (“저곳에”), 彼 _ㄴ ㄴ
30	106	或	或 _ㄴ , 或 _ㄴ ㄴ, 或 _ㄴ ㄴ, 或
31	103	生	生+조사, 生 _ㄴ , 生 _ㄴ , 生+어미
32	102	一	一 1 (화엄), 一 ㄴ ㄴ (유가), 一+조사, 一, 一 _ㄴ 17)
32	102	而	而 _ㄴ , 而 ㄴ, 而
34	99	菩薩	菩薩 _ㄴ (+), 菩薩+조사, 菩薩
35	92	謂	謂+어미
36	91	中	中 _ㄴ ㄴ(+ ㄴ, ㄴ 85)18), 中+조사(6)
37	84	由	由 _ㄴ ㄴ ㄴ ㄴ, 由{三} _ㄴ , 由 _ㄴ
38	82	其	其
39	80	時	時 _ㄴ , 時 _ㄴ (ㄴ) ㄴ, 時 _ㄴ ㄴ, 時+조사
40	79	則	則 _ㄴ (화엄, 화소), 則(화엄, 화소), 則 _ㄴ (유가)
41	68	亦	亦 _ㄴ (화엄, 화소), 亦 _ㄴ ㄴ (화엄, 화소, 구인), 亦(금광, 유가)
42	66	之	{之} _ㄴ , 之+조사(1), {之}(ㄴ)
42	66	令	令 _ㄴ (화소, 화엄, 금광), ㄴ {令} _ㄴ (금광, 유가)19)
44	64	善男子	善男子 _ㄴ , 善男子 _ㄴ , 善男子
44	64	悉	悉 _ㄴ , 悉
44	64	我	{我} _ㄴ , {我} _ㄴ ㄴ+조사, {我} _ㄴ , 我, 我+조사20)
47	62	何	何 _ㄴ , 何 _ㄴ , 何 _ㄴ , 何 _ㄴ ㄴ21), 何 _ㄴ , 何
48	61	至	至 _ㄴ , 至 _ㄴ ㄴ, 至+어미22)
49	59	入	入 _ㄴ , 入 _ㄴ , 入 _ㄴ , 入+어미
50	57	云何	云何 _ㄴ , 云何 _ㄴ ㄴ, 云何 _ㄴ , 云何 _ㄴ ㄴ23)
50	57	及	及 _ㄴ , 及 _ㄴ , 及

할 수 있다. 그리고 후자는 중국 문헌에서부터 쓰이는 한자어 어휘로서 ‘한국한자어’의 범주 밖에 놓이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말화한 석독구결 문장 내에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한자어의 토착화에 유의미한 것이며 이 양상을 간취하여 『한국한자어사전』이나 『漢韓大辭典』에 용례로 활용할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V. 결 론

이상으로 『韓國漢字語辭典』 증보편찬 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석독구결 자료와 이 자료에서 분석되는 한자어 및 구결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재 『韓國漢字語辭典』에는 구결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석독구결 자료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한자어 및 구결자에 대한 정보 증보편찬 시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반영된다면 어떤 점에 주목하여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그 양상과 특징을 고빈도 글자를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결과 석독구결자의 특징, 즉 ‘是’를 ‘이’(지시사, 주격 조사, 서술격 조사 등)로 읽는 것과 같은 정보를 반영하기 위한 사전의 미시구조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고 한자어의 한국 수용과 정착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적절한 용례를 석독구결 자료에서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윤승준(2012: 153)에는 車柱環 박사가 『韓國漢字語辭典』의 교열 작업에 관계하면서 절박하게 밝힌 소회를 “그동안의 작업으로 어휘 채록은 대략 10만을 헤아릴 정도에까지 이르렀으나 거기에는 취사 선택이 가해져야 하고 추가 채록할 어휘도 적지 아니 남아 있으며, 그 중에는 처음으로 語音과 語義와 說明을 써내야 하는 어휘가 의외로 많아서 한정된 사업 기간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정력을 쏟지 않을 수 없고, 조사 연구에 시간과 정력을 쏟더라도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라고 정리하였다. 『구결연구』 학술지가 2016년 2월까지 36집이 발간되는 정도로 구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이 사회에서처럼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 사례가 많고 또 이들을 사전에 담아내는 것은 역시 처음으로 기술해야 되는 것들이다.

증보 편찬 과정에서 석독구결 자료에 담긴 한자어 및 구결자를 『한국한자어사전』에 담아내는 것은 처음 편찬할 때와 마찬가지로 감당하기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정보를 담아내기로 결정한다면 여러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각 표제어의 정보에 각 어휘 및 글자가 사용되는 범주별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모두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인한, 「한자사전자음처리의 원칙과 실제에 대한 비교」, 『東洋學』 59,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5.
 김영만, 「口訣語 如(ㄹ, 支, 直, 印)의 解讀法 研究」, 『한민족어문학』 40, 한민족어문학회, 2002.

- 남권희, 「高麗 口訣資料 《大方廣佛華嚴經》卷第十四의 書誌的 分析」, 『口訣研究』 1, 구결학회, 1997.
- 남권희,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 남권희 · 남경란, 「13세기 高麗 釋讀口訣本 『慈悲道場懺法』 卷4 殘片의 구결 소개」, 『국어사학회,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공동 학술대회 발표문(2016. 01. 13)』, 2016.
- 南豊鉉, 「釋讀口訣의 起源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00, 국어국문학회, 1988.
- 남풍현, 「고대 국어 자료」,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국립국어연구원 편, 1998.
- 남풍현, 『《瑜伽師地論》 釋讀口訣의 研究』, 태학사, 1999.
- 남풍현, 「字吐釋讀口訣에 나타난 不讀字에 대한 考察」, 『구결연구』 18, 구결학회, 2007.
- 남풍현, 「韓國語史 研究에 있어 口訣資料의 寄與에 대하여」, 『口訣研究』 25, 구결학회, 2010.
- 박성중, 「고대 국어 어휘」, 국립국어연구원 편,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1998.
- 박진호, 「『漢韓大辭典』의 뜻풀이에 대하여」, 『東洋學』 59,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5.
- 朴燦圭, 「『한국한자어사전』에 수용된 이두 · 구결 · 차자어의 구성과 출전문헌」, 『東洋學』 52,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2.
- 백두현, 『석독구결의 문자체계와 기능』, 한국문화사, 2005.
- 윤승준, 「『漢韓大辭典』의 편찬과정과 향후 계획」, 『東洋學』 52,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2.
- 이병기, 「구결 자료의 어휘」, 『口訣研究』 33, 口訣學會, 2014.
- 장경준, 「점토구결 연구의 성과와 당면 과제」, 『口訣研究』 21, 口訣學會, 2008.
- 장윤희, 「석독구결 및 그 자료의 개관」, 『구결연구』 12, 口訣學會, 2004.
- 정재영, 「韓國의 口訣」, 『口訣研究』 17, 구결학회, 2006.
- 정재영 · 안대현 · 하정수, 「조선 초기 釋讀口訣의 발견과 그 의미」, 『구결학회(제51회), 한국법사학회 공동 전국학술대회 발표문(2016. 01. 12)』, 2016.
- 정형도, 「『漢韓大辭典』의 構件과 字形 정비」, 『東洋學』 52,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2.
- 車柱環, 「韓國漢字語辭典의 編纂과 校閱」, 『東洋學簡報』 4,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1986.
- 황선엽 외, 『釋讀口訣辭典』, 태학사, 2009.

* 이 논문은 2016년 2월 25일에 투고되어,
2016년 3월 11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6년 4월 4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6년 4월 4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Abstract

The Materials of *Meaning Indicators System Kugyol* and the *Dictionary of Korean-Chinese Characters*

Lee, Byeonggi*

Under the common theme of seeking a direction of revised compilation of the *Dictionary of Korean-Chinese Characters* (韓國漢字語辭典),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methods to reflect in the *Dictionary of Korean-Chinese Characters* Korean-Chinese characters, which are shown in the materials of *Seogdok Kugyol* (Meaning Indicators System *Kugyol*). Introducing the materials of *Sogduk Kugyol*, I first examine the information of characters of *Kugyol* and the scope of Korean-Chinese characters, which are reflected in the *Dictionary of Korean-Chinese Characters*. Second, I explore the features of *Seogdok Kugyol* after selecting most frequently used characters of *Seogdok Kugyol*. Finally, I argue some possible issues of the *Dictionary of Korean-Chinese Characters* when registering the most frequently used characters. In the result of my argument, I suggest that one should develop microscopic structure of the dictionary in order to reflect such information as one of the features of characters of *Sogduk Kugyol* that 'si(是)' is deciphered as 'i', which means pronoun, nominative or copula etc. In addition to this, I underline the necessity of taking proper examples from the materials of *Seogdok Kugyol* for understanding the process of acceptance and settlement of Chinese characters in Korea.

[Key Words] *Seogdok Kugyol* (Meaning Indicators System *Kugyol*), Korean-Chinese Characters, *Dictionary of Korean-Chinese Characters*, Characters of *Kugyol*, The microscopic structure

* Professor, Hallym University

